소녀시대 뭐하나 했더니~

메트로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제2??3호 www.metroseoul.co.kr

"솔직히 현실은 조 3~4위"

월급 9900원 '스마트 보디가드'

서울시 1인 여성가구 대상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 급증
범죄 많은 연말 원룸촌·단독주택 거주 여성들 불안 덜어
홈 블랙박스·스마트폰 CCTV 등 지능형 서비스도 인기

12일 서울 행마동의 한 다세대주택 여대생 이정윤(21)씨가 현관문에 설치된 감지기를 가리킨다.

"누군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이 조그만 감지기가 관제센터로 통보해요. 예전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것만큼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웠어요. 대학가 근처에 여대생이 사는 원룸만 노리는 범죄자도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안심하세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된 이씨는 3개월째 서울시 홈 방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10분 거리의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관련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보안 전문기업 ADT캡스가 서울시와 함께 최근 시작한 '서울시 홈 방범' 서비스는 최신 스마트 보안을 월 9900원에 1인 여성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감지센서 등을 집에 설치하면 외부 침입이 감지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업체에 즉시 침입 신호가 전송돼 긴급 출동이 이뤄진다.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ADT캡스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출동대원이 나타난다.

이 서비스는 직접 사용해본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달 신청자 수가 2000명을 돌파했다.

스마트 보안 서비스가 일반 가정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폐쇄회로(CCTV)나 특정 센서를 집에 장착하고 전용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으면 손바닥 안에서 우리 집 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연말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월 이용료도 4만~5만원 선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또 다른 보안업체 에스원은 공동주택 전용 방범 서비스 '세콤 홈블랙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아파트·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신변 보호는 물론 생활 편의를 돕는 기능도 있다. CCTV가 찍은 영상은 유튜브의 개인 계정에 자동 저장할 수 있어 수시로 재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성·어린이·노인 등 노약자의 귀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집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경로를 이탈할 때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주인이 없을 때 방문한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와 기다릴 수 있도록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기능은 '스마트' 그 자체다.

KT의 '올레 CCTV 텔레캅' 방범 서비스도 인기다. 200만 화소의 풀 HD급 영상을 제공하는 CCTV를 PC와 스마트폰에 연결한다.

지능형 영상 감시가 가능해 CCTV에 낯선 사람이 보일 경우 알람 메시지가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KT텔레캅의 무인 경비 서비스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거실·안방 상황을 생중계하는 홈 모니터링 장비도 사랑받고 있다. '벨킨의 넷캠'은 전용 카메라를 현관 와이파이로 연동해 집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집 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재활 도우미 로봇 · 수소로 가는 자동차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창조경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뇌졸중 환자를 위한 보행 재활로봇(왼쪽)과 수소연료 자동차(오른쪽)를 살펴보고 있다. '2013 창조경제박람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창조경제 실현 사례들을 풍부하게 선보이고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갤노트3' 한국 106만원 vs 영국 78만원

스마트폰·노트북 등 세계에서 가장 비싸

한국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일부 전자제품과 축산물 등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2일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14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판매 중인 32개 품목 60개 제품의 물가(달러 또는 원화 환산)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8개 품목 11개 제품의 한국 가격이 가장 비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0~30일과 10월 1~10일 현지의 백화점·대형마트(전문점)·일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된 제품들은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3와 LG G2) ▲노트북(삼성 아티브 북4) ▲서비메이커(필립스 CM 5100과 느봉기 ESAM 6700) ▲축산물(국내산 등심과 삼겹살) ▲수입 과일(자몽) ▲크림치즈(래핑카우) ▲수입 꿀(뉴질랜드산 마누카 꿀 UMF 20+) ▲와인(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소비뇽) 등이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3(106만7000원)의 경우 14개국 중 가장 싼 영국(78만6800원)보다 1.4배, 미국(84만7000원)보다 1.3배 비쌌다. 역시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S4의 국내 가격은 비교 대상 국가 14개국 중 상위 5위(89만9800원)였지만 미국보다 22만9900원 비싸게 팔렸다. 애플의 아이폰5S 한국 판매가(101만원)는 전체 중 아홉 번째로 중간 정도의 수준에 판매됐다.

삼성의 노트북 아티브 북4(125만원)의 경우 조사 가능국 11곳 중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됐다.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미국(63만7000원)보다는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태블릿PC의 경우 삼성 갤럭시탭 10.1(70만원)은 조사 국가 중 한국이 4위, 에이수스 넥서스7(36만9000원)은 10위, 애플 아이패드4(65만원)는 11위로 판매 가격이 높았다. /김민서기자 sms@

'공인 중의 공인' 연예인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2013년 연예계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올해엔 유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형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터져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는 사태가 몇 차례나 벌어졌다.

남자 연예인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기소됐고, 여자 연예인들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복무 비리도 터져 결국 연예병사 제도가 16년 만에 폐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박시후의 성폭행 논란도 있었고, 잊을 만하면 터지는 마약 사건과 음주운전도 빠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연예인들은 "공인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곤 했다. 물론 그런 연예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인기의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긴장과 불안이나 불규칙한 스케줄은 누구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사고에서는 이들이 연예인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말로만 공인이라고 떠들 뿐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나 의사가 최고인 줄 알았던 예전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을 최고의 우상으로 꼽는다. 그러니 연예인들의 작은 행동조차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연예인들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요구되는 건 그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하다.

국회 등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자체개혁안 국회 특위에 보고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도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의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고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IO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직원에 대해선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했다. 아울러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뢰하게 됐다.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 지령, 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지원 와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정치 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기싸움? 12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참석한 남재준(왼쪽) 국정원장이 정세균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새누리 김영주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10월 확정

새누리당 김영주(61)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므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구두 테마역'으로 새단장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구두 관련 전시 체험관, 갤러리 등이 있는 '구두 테마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2일 서울시와 성동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구두 관련 전시·체험 공간이 있는 '구두 테마역 슈스팟'으로 조성하고, 역 외부에 성수동 수제화 공동 브랜드 '프롬에스에스(fromSS)' 매장을 연다고 밝혔다.

성수동은 서울 구두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밀집된 국내 최대 제화 산업 집적지다.

권익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극적 해결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 8년여 동안 끌어온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돼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이성보(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송전선로 대안 노선 예정지를 찾아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총 30.4km 구간에 345kV급의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삼성, 안방서 애플에 졌다

특허침해금지 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구성을 한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이 자사의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과 관련된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허 권리 확득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와 관련된 애플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태균기자 ksetc@

'자살 여대위' 성추행한 소령, 또다른 피해자 6명

자살한 A(28·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소령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여군이 6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 소령은 A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뿐만 아니라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총 6명의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들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 소령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대위는 B 소령으로부터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에 시달렸으며 지난 10월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장다희기자 yd@

화천 얼음광장 마무리작업 내년 1월 개막하는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앞두고 세계문화유산을 본뜬으로 조각한 얼음광장이 마무리작업을 마치고 13일 화천읍 서화산 내 광장에서 개관한다. 군 직원이 12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류대란에 사고까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치로 장기화 우려… 코레일 또 부더기 직위해제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로 접어들며 화물열차가 평상시의 30%대 운행에 머무르는 등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은 파업 첫날 평시의 48%였지만 이후 38%, 37%로 점차 줄어 시멘트와 석탄 등 원자재가 필요한 산업 현장마다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 출하 물량은 평소 대비 30%까지 줄었다.

이에 반해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파업 첫날인 9일 이후 지금까지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무궁화호는 각각 75%, 68%가, 화물열차는 32.9%가 운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코레일 노사는 평행선을 걷고 있어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레일 사측은 현재까지 노조 간부 194명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자 7608명을 직위해제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를 의결한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박선옥기자 pso8820@metroseoul.co.kr

이 사내의 손장난에 전 세계가 속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91개국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열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수화(手話)통역을 맡은 사람이 '가짜'로 밝혀졌다. 11일 남아공 농아연맹의 브루노 드루친 사무총장은 "한 남성이 무대 위의 오바마 등 각국 지도자들 옆에서 손을 움직이는 장면이 TV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의 수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옆에서 '가짜' 수화통역사가 검지 손가락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국산 경공격기 FA-50 24대 이라크 수출… 2조원대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이라크 수출 모델명 T-50IQ) 24대를 수출한다.

수출 규모는 기체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21억 달러(약 2조2121억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항공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총리실에서 FA-50 24대를 이라크에 수출하는 데 합의했다. 양

/이재영기자 ljy1403@

시 내년 예산 삭감없이 의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상용)는 부산시가 제출한 8조4049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결된 내년 예산은 2013년 대비 0.5%(444억원) 증액된 규모다.

예결위는 일반 회계의 세입 부문은 조정 없이 세출 부문에서 일부 주요 사업의 예산을 조정했다.

부산발전연구원 6억원, 원전기자재 핵심원천기술 부품소재 개발 2억원, 부산관광공사 출자금 2억원,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3억원 등 모두 82억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82억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 20억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영구임대아파트 난방비 지원에 2억원 등 다른 분야에 모두 62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다.

시의회 예결위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조3016억원도 의결했다.

예결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13일 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넥슨커뮤니케이션즈 최우수 가족기업 선정

영산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김규철)은 올해 성원하준 가족기업을 가운데 최우수 가족기업으로 ㈜넥슨커뮤니케이션즈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13일 오후 3시부터 해운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교육장에서 최우수 가족기업의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 게임기(다트 시가 500만원 상당) 기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영산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우수 산학협력 모델을 보여준 ㈜넥슨커뮤니케이션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칠순 잔치 축의금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 동구 좌천동 윤종필씨가 지난 10일 좌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칠순잔치 축의금 100만원을 연말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좌천1동 주민센터 제공

철새에게 먹이를 나눠 주세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16일부터 곡류 모으기 행사

"집에서 묵혀두고 있는 잡곡, 낙동강 하구를 찾는 겨울 철새들을 위해 내어주세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철새들의 먹이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도래지 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철새사랑 곡류 모으기 행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가정에서 먹다 남은 잡곡을 모아 철새들을 위해 낙동강 하구를 찾은 겨울 철새들에게 공급해 혹한기 먹이 부족을 해소하고 겨울 철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는 70여 종 1만여 개체의 겨울철새들이 월동하고 있다. 철새들은 2월말까지 이곳에서 머물다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들 중 먹이 부족으로 탈진하거나 질병으로 부상 및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혹한기 겨울 철새 먹이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행사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각 가정에서 먹다 남은 잡곡(쌀, 보리 콩 등)을 각 구·군에 설치된 접수창구 및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입구 안내데스크에 직접 가져다주면 된다. 단체 및 대량 기탁자에 대해서는 에코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아진 곡식들은 2014년 1월 중순 을숙도 남단에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예정인 '혹한기 철새먹이 주기 행사'를 통해 겨울 철새들의 긴급 구호용 먹이로 사용될 방침이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겨울 철새들의 먹이 부족 해소와 자연 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겨울 철새들의 먹이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82일간 을숙도 남단 갯벌, 에코센터 습지 등에 매일 고구마 220~440㎏, 볍씨 120㎏을 공급하고 있다.

/정익균 기자 ibk@metroseoul.co.kr

'일가족 참사' 부산 아파트 화재 피해 컸던 이유 세가지 11일 밤 화재가 발생해 어머니와 어린 아이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아파트가 노후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불이 순식간에 번진 점, 어린 아이가 많았던 점도 화재규모에 비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원 경찰, 소방, 전기, 가스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순유니온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

김정순유니온발레단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를 선보인다.

김정순유니온발레단은 지금껏 다양하고 꾸준한 공연 활동으로 무용예술의 발전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인식 함양에 앞장서온 단체다.

이번에 올리게 되는 '호두까기 인형'은 부산 발레의 실정 저변 확대, 발레 애호가들의 만족도 향상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예술의 향기가 담긴 작품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사회분위기 조성, 순수예술과 비순수예술의 조화 및 협력을 지향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공연에는 부산출신 발레리나 김혜민, 발레리노 루기스, 발레리나 김비선, 발레리노 까지혁, 미주호 및 뮤지컬 배우 변우민이 특별 출연한다.

이번 공연의 특색 중 하나는 2인무에 나오는 스웨덴국립발레단 버전과 파리오페라발레단 버전이 나눠어 펼쳐진다.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51)865-2277 /정익균 기자

광안대교 기네스북 도전

세계 최고 조명상에 출품도

'다이아몬드 브리지'란 애칭으로 불리는 부산 광안대교가 기네스북 등재와 함께 세계 최고의 경관 조명에 도전한다.

부산시는 화려한 LED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4월 점등식을 한 광안대교 야간 경관 조명과 음향장비의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안대교 야간 경관 조명 개선사업에는 모두 104억원이 투입됐으며 세계 최다인 LED 등 1만6000개가 설치됐다.

1만6000개의 LED 조명등은 평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기본 조명으로 경관을 연출하다가 계절별로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조명으로 바뀌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해변 가로등주에 설치된 54개의 음악 전용 스피커 54개가 광안대교 경관 조명과 어울리는 음악을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 '세계 최초의 입체적인 경관 조명 시스템'을 갖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기네스북 등재와 함께 내년에 프랑스 리옹과 홍콩 등 세계적인 야간 경관 도시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조명도시연합(LUCI, Lighting Urban Community of International)에 가입하고, 이 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세계 최고의 조명상'(국제도시조명상)에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출품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낚시관광 선진화 내년 본격 추진

부산시는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 등 '낚시 관광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낚시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연안 어선의 피싱 보트(Fishing Boat)화 등 4개 사업, 낚시 선진화 모델 개발을 위한 민물낚시 테마파크 조성(낚시공원) 등 5개 사업, 낚시 산업 연구·개발(R&D)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등 3개 사업, 낚시 관련 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 지원 등 4개 분야 16개 세부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낚시 관광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79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에어부산 국적항공사 첫 가오슝 취항 에어부산의 부산-가오슝 노선의 신규 취항식이 지난 11일 오전 김수천 에어부산 사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탕띠엔원 주한대만 부산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공항 국제선 3번 게이트 앞에서 열렸다. 부산-가오슝 노선은 주 4회(수, 목, 토, 일) 운항한다. 뒷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의택 부산지방항공청장, 김석조 부산시 시의회의장, 김수천 에어부산 사장, 탕띠엔원 주한대만부산총영사.

가슴 커지는 크림·식품 5억 밀수

부산경남본부세관 3명 검거…인터넷으로 국내 유통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미국산 가슴 커지는 크림과 캡슐형 가능성 식품 2만1300점 5억원어치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해 국내로 반입 후 인터넷에 판매해온 업체 대표 송모(남 34)씨 등 3명을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 측에 따르면 송씨 등은 미국에서 가슴 커지는 크림 등을 중보 단위(크림과 캡슐 패키지)로 헐값에 사들여 현지 거래처 또는 친인척 등의 가게에 보관해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주문을 받아 미국에 주문자 명단을 e메일로 알려주고 마치 국내 주문자들이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자기 사용 물품인 양 위장해 세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하는 수법으로 2010년 8월 10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크림과 캡슐 등 2만1300점 시가 5억32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한편 이들은 2011년 11월에 미국산 패키지 상품(크림+캡슐) 중 캡슐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현지 거래처 또는 친인척 등에게 부탁해 국내 주문자에게 국제 특송을 통한 직배송 수법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또 정상 수입이 가능한 크림은 세관에 신고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이들 외에도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BIP,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부산 대표 향토기업 BN그룹 BIP(주)는 지난 11일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3 부산 무역의 날 전수식 에서 BIP(주) 기술본부의 김주호(사진 왼쪽) 부장과 생산본부의 전병태(오른쪽) 반장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BIP(주)의 김 부장과 전 반장은 각각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생산력을 향상시켜 수출 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 회사는 선실 인테리어 내장재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5년 부산지역 우수 제조수출기업에 주어지는 부산수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하균기자

자갈치시장 글로벌 명소화

부산시는 동북아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내 최대 수산물 공급기지의 현대화와 식품산업 육성, 국제 수산물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기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산시는 내년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동어시장 현대화는 위판 기능, 체험·관광, 유통 기능 등을 갖춘 복합유통센터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기존 자갈치시장을 해양 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등 추진한다. 이 사업은 184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다.

겨울철 대표생선 대구 경매 한창 12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수협 외포출장소에서 대구 경매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6학년까지

5학년까지 이뤄진 부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6학년이 포함되면서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초등학교 6학년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학기 중 급식지원비 988억원을 삭감없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부산지역 14만3500여 명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3일 열리는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 1~5학년 모든 학생과 중·고교 및 평생교육시설 내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체의 25%인 5만99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도로명주소 종합평가 연제구 올해도 우수

연제구가 2013년 부산시 도로명주소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소 전환 지원 시책 ▲예산 확보 및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관리 ▲구·군별 모범 사례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구는 독거노인 대상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미래 주소 사용 주체인 어린이 대상 교육,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전 세대 안내문 발송,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우리 집 도로명주소 적어보기' 체험행사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정하균 기자

'13월의 월급'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올크레딧 '맞춤 연말정산' 무료서비스… 소득공제 가이드 제시

연말이 다가오며 일명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자들이 한 해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낼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항목(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급여소득액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을 주요 공제 자료로 삼는다.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줄었고, 현금영수증은 종전 30%로 유지해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남은 연말까지 자신에게 소득공제율 적용폭이 높은 결제 수단을 집중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본인의 주된 결제 패턴을 반영하되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결제 수단을 집중 사용하는 것이 주요하다. 예를 들면 고소득씨의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대비 체크카드 지출액이 높지 않아 향후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 집중 사용을 권하고 있다.

지출액의 90%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이연말씨의 경우 체크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공제율이 동일한 현금영수증 집중 사용이 유리하다. 김공제씨는 현재 이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205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공제액인 300만원까지 더 받기 위해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의 총 지출 액수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데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 조회·관리 사이트인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서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라는 무료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올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총 금액을 알려주고, 총 소득과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입력해 남은 기간 동안 사용자가 각 수단별로 얼마나 사용해야 연말정산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제시해준다.

올크레딧 관계자는 "매년 관련된 세법이 바뀌고 계산법도 복잡해 직장인들이 어렵게 생각한다"며 "자세한 계산법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지출 정보만 입력하면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하고 했다"고 전했다.

내 맞춤 연말정산 확인하기 서비스는 올크레딧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하면 누구나 즉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단비기자 jdb@

■ 3인의 사례로 본 올크레딧 소득공제 가이드 예시

구분		고소득 미혼남 (연봉 5,000만원)	이연말 미혼여 (연봉 5,000만원)	김공제 자녀 2명 (연봉 5,000만원)
현재 지출 구분	신용카드	725만원	1,117만원	1,493만원
	체크카드	303만원	0	512만원
	현금영수증	0	50만원	0
현재 지출 합계		1,088만원	1,167만원	2,055만원
향후 소득 공제 맞춤 가이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집중	현금 영수증 집중	신용카드 STOP 체크카드 집중

자료: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제공

위례 '사랑으로' 1380가구

조망권·주거환경 갖춰 -부영 16일부터 청약접수

(주)부영주택이 위례신도시 A2-10블록 '사랑으로' 아파트 견본주택을 지난 11일부터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연내 종료되는 가운데, 마지막 수혜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 지상 12~20층 21개 동, 전체 138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5㎡ 1074가구 ▲145㎡ 8가구 ▲147㎡ 148가구 ▲149㎡ 150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1074가구가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파트는 남한산성을 배후지로 위례신도시 내 최대 근린공원 바로 옆에 위치, 뛰어난 조망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갖췄다. 또 단지 옆으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했고, 신도시 내 19개 초·중·고교가 신설될 계획이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85㎡ 5억5400만원 ▲147-149㎡ 8억5600만원 ▲145㎡ 9억5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오는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2순위, 18일 3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계약은 29~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1번 출구 근처에 마련돼 있다. 2015년 12월 입주 예정.

문의: (02)400-5835~7

/박선옥기자 cso@

고액·상습체납 78명 공개

관세청은 12일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농산물 수입업체인 문세영 강서식품 대표가 139억원, 박면양 국제통상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해 1·2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대표 서준)가 95억원이 체납돼 1위를 차지했다. 전체 78명의 체납액은 1596억원이었다. 개인은 997억원, 법인은 599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78명에 대해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개근기자 kgg@

설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엄마, 나 러시앤캐시 합격했어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은행이나 카드회사랑 하는 일은 비슷해
대신, 이자가 비싼 만큼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아직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다녀보니까 좀 좋아지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구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3년)	환율
1967.05	495.84	3.01	1050.50
(-10.04)	(+0.89)	(변동없음)	(-0.50)

뉴스 & 뉴스

금리 연 2.5% 7개월째 동결

● 한국은행이 연 2.50%인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2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7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민지기자

펀드투자자 60% 보고서 안봐

● 국내 펀드 투자자의 약 60%가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운용보고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일반인 2530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펀드 투자자 중 59%가 운용보고서를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이유로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투자자가 40.9%로 가장 많았다.

재단 측은 "정보 제공과 금융 교육으로도 펀드 사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올 시총증가폭 증시>부동산

● 올해 증시 시가총액이 63조원 늘어나면서 부동산 증가분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거래소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총은 1326조원으로 지난해 말(1263조원)보다 5%(63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시총은 경기와 인천 아파트 중심으로 늘면서 전국적으로 1915조원에서 1948조원으로 33조원(1.7%)가량 늘어났다.

다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6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669조5000억원)보다 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학
편 집 국 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유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0-2000
독 자 센 터	(02)721-9880

(이하 판독 불가)

직장인이 바라는 송년회 1위 '문화생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술 마시는 송년회 대신 영화·연극 관람 등 문화 생활 즐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임직원 1867명을 상대로 '내가 바라는 부서 송년회'를 설문조사한 결과 영화나 연극 관람 등 문화 생활 즐기기(26.9%)가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식사(20.4%), 회사 주변 맛집에서 점심 회식(10.7%), 저녁 음주 회식(7.6%) 등이 뒤를 이었고 아예 송년회를 생략하자는 의견도 2.5%에 달했다. 남성 직원들은 음주 회식과 여행·체육행사 가족 모임 등을 선호했으며 여성 직원은 공연관람과 술 없는 회식 점심 회식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색 송년회 아이디어로는 봉사활동, 찜질방 마사지숍, 파자마 파티, 부서장 집에서의 가족 모임 등이 주목을 받았다. /가국현기자

배당주로 '틈새 수익' 노려라

26일까지 주식 사야··증권·보험업 12월로 결산기 변경 '주목'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투자해야 한다. 특히 증권·보험업종의 경우 올해 배당 업종의 기업들이 결산기를 3월에서 12월로 변경한 데 따라 9개월분에 해당하는 배당액만 나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 결산 법인의 기말 배당액은 11조1179억원으로 추정됐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1.1%가 예상됐다. 증권사별로 최소 1.05%~최대 1.18%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배당액은 전년(9조3627억원) 대비 1조7572억원 늘어나고 배당 수익률은 전년(0.99%)에 비해 0.1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을 올리고 보험업종이 결산기를 변경하면서 코스피200의 배당 수익률 평균도 예년보다 높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최소 1%(1만4000원)로 관측된다.

올해 배당에서는 증권·보험업종이 3월 결산에서 12월 결산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결산기 변경으로 배당 업종의 절대 배당 액수가 예년의 4분의 3 수준(9개월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 부진을 겪는 증권업종은 종전의 배당 수익률은 유지하고 보험업종의 경우 보험사의 자본여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기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증권업종에서 배당 투자 매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주주들을 고려해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보험사들에 대해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 제재를 받기 때문에 배당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삼성화재는 양호할 것으로 보며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소폭에 그치고, RBC 비율이 금감원 권고 수준에 미치지 않는 현대손보의 경우 배당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동부증권은 올해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을 1.5%로 예상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 주요 17개 은행·보험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1.5%로, 지난해 2.1%보다 하락할 것"이라며 "금융주 시가총액이 전년 말보다 8.1% 늘었으나 주당 배당액이 15.4% 감소하면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귀로 감상하는 미술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지점에서 열린 '귀로 듣는 미술' 전시회, 작은 갤러리에서 이곳의 관람객 등이 헤드셋을 통해 미술 작품 묘사 설명을 듣고 있다. 작은 갤러리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소리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오디오 해설을 제공하는 이색 전시회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예·적금 '풍차 돌리기' 돈 모으는 재미 쏠쏠

전순이 주부 경제학

요즘 풍차 돌리기란 재테크 방법을 자주 듣게 된다. 풍차 돌리기는 쉽게 말해 예금과 적금을 혼합한 개념이다.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면서 1년만 유지하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곳에 목돈으로 적금 들기가 부담스럽거나 적금 들면 오래 못 버티고 해약하는 분들께 추천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①첫달 10만원 1년 만기 상품에 가입 ②둘째 달 10만원을 1년만기 상품 가입 ③셋째 달도 똑같고, 열두 째 달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 ④열셋 째 달에 처음 가입했던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받고 ⑤원금과 이자는 새로 저축하는 금액과 함께 다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해 ⑥다음달 만기가 찾아오는 '원금+이자+저축 금액'으로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한다.

이런 형태로 1년 내내 새로 만들면서 만기를 타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풍차 돌리기를 통째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풍차 돌리듯이 순환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12개의 통장 가운데 일부만 해약해도 되니 마음까지 든든하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한 곳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만기일까지 아무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에 해지해야 한다. 중도해지 이율은 거의 0%대에 가깝다.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풍차를 돌렸을 경우엔 소수의 예금만 해지하면 되니 금전적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

풍차 돌리기는 부자가 되는 재테크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준다. 돈 모으는 재미에 한번 빠지면 나도 모르게 절약하는 전순이 습관이 몸에 밸 것이다. /김선지기자 min@

"비트코인 변동성 커 민간화폐 가능성 ↓"

김중수 한은총재 밝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향후 민간 화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규격화, 수용성, 가치 변동성, 안정성, 내재적 특성에서 볼 때 현재로선 민간 화폐로 발전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란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다.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지만 올해 키프로스 금융위기 이후 대안 투자 상품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민간 화폐로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크다"면서 "과거 잣대로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수용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화폐를 과연 화폐로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과연 안전할 것인지의 제약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이 받는 영향에 대해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대단히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민지기자

병원선 연예인 대접받는 '바이엘의 싸이'

바이엘 부산지점 김선우씨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를 돌아봐야 할 지금 한 기업과 한 사람에게는 2013년이 다시 만나지 못할 추억의 해로 기억된다. 바로 글로벌 화학 및 제약기업 바이엘과 바이엘 헬스케어 여성건강사업부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는 김선우(31·작은 사진)씨다. 바이엘에게는 올해가 창립 150주년이 된 해이며, 김선우씨에게는 올해가 바이엘의 '싸이'로 알려지면서 슈퍼스타가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의 2013년을 만나봤다.

"지금 바이엘 헬스케어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외근을 갔던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제 오래된 팬을 만났어요. 제가 부산MBC에서 리포터로 활동했던 때를 기억하는 분이셨는데 그 뒤로 그 병원에서 저는 연예인 대접을 받고 있죠. (웃음)"

인사를 건네고 어쩌다 싸이가 됐냐는 질문에 기다렸듯이 말을 받는 김씨의 첫마디였다. 사실 김씨는 지난 6월 독일 레버쿠젠에서 열린 150주년 바이엘 기념행사에 당당히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다. 150주년을 기념해 본사에서 진행한 '바이엘 송 콘테스트'에서 단 10명만이 받을 수 있는 최종 본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콘테스트는 전 세계 바이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벤트였는데 김씨는 바이엘 송을 자신만의 춤과 영상으로 꾸며 당당히 바이엘의 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한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던졌던 150주년 기념 파티에서도 단독으로 공연을 펼친 실력자다.

지난 6월 독일 레버쿠젠에서 열린 150주년 바이엘 기념행사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은 바이엘 헬스케어 부산지점 직원 김선우씨는 '바이엘 송 콘테스트'에 나서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바이엘의 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바이엘 제공

회사 창립 150주년 기념행사 한국대표 초청 · "놀땐 화끈하게 놀아야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야 삶이 즐겁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끼 때문에 사내 한 행사에서 사회를 봤는데 그때 사장님께 노래시켰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적도 있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회사 생활에도 제법 만족하는 눈치였다. 회사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려는 찰나 그가 먼저 말을 이었다.

"바이엘은 직원을 가장 우선시해요. 올해 150주년을 맞아 진행된 행사들은 바이엘의 기업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전 세계 직원들의 바이엘 이야기를 공모한 '바이엘 스토리'도 있고 제가 참여한 바이엘 송 콘테스트도 그렇죠. 특히 회사 기치를 실현하는 봉사활동을 선정해 시상한 '바이엘 롤모델'은 바이엘의 주인공이 바로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예측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어 그는 "그래서 바이엘은 직원 간의 평등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수평적 문화를 추구하다 보니 사장님도 저에게 '김선우님'이라고 부르거든요"라고 특(?)별히(?) 강조하며 말했다.

오래 쌓인 전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직원의 가치가 존중되고 직급에 상관없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바이엘의 문화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어 그는 "올해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직장에서 함께한 행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내년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기도 하겠지만 올해의 추억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 같아요"라며 말을 마쳤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다가오는 2014년에도 끼 넘치는 바이엘 싸이의 활약이 기대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최초 최고 최장>

'3최' 엔브렐 개발자 노벨상 받았다

시크릿 노트

노벨상.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고의 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조금 친근하게 다가온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중 노벨상과 관련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류머티즘관절염 및 류머티즘질환 치료제로 잘 알려진 한국화이자의 '엔브렐'이다. '의약품이?'라며 고민하고 있겠지만 눈치가 빠르다면 벌써 정답을 맞혔다. 엔브렐을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 바로 미국의 면역 유전학자 브루스 보이틀러 박사다.

사실 류머티즘관절염은 강직성 척추염, 건선 등과 함께 자가면역질환이라 불린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종양괴사인자(TNF) 등과 같은 사이토카인(세포 간 신호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돼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류머티즘 질환 치료가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생물학적 제제인 엔브렐이 등장하면서 류머티즘질환 치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당시 보이틀러 박사는 TNF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용체를 활용한 접근법을 생각했고 이후 엔브렐의 주성분인 '에타너셉트'라는 물질을 개발했다. 그리고 엔브렐이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TNF 차단에 성공하며 미국에서 최초의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보이틀러 박사는 지난 201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최초로 등장한 엔브렐이 단연코 '최고'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제제도 '최초'로 출시됐다. 국내 TNF 억제제 중 유일하게 실온 보관이 가능한 '엠비언트 패키지'를 선보인 것. 이기에 16년 이상 된 '최장'의 장기 임상연구 데이터까지 갖춰 엔브렐의 효과와 안전성까지 입증됐다.

올해로 국내 출시 10주년을 맞은 최초, 최고, 최장 '3최'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엔브렐. 또 어떤 스펙을 쌓을지 기대가 된다. /황재용기자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독각귀홀에서 열린 '한국얀센·GSK가 함께하는 자선냄비 콘서트'에는 양사의 직장인 밴드와 임직원들이 참여해 작지만 소중한 정성을 모았다. /한국얀센 제공

한국얀센·GSK 자선냄비 콘서트 열어

추워지는 연말 작지만 따뜻한 손난로 같은 공연이 열렸다. 바로 지난 11일 저녁 7시30분 서울 용산 전자랜드 독각귀홀에서 열린 '한국얀센·GSK가 함께하는 자선냄비 콘서트'다.

콘서트는 소속은 다르지만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연말을 맞아 소외 이웃에게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대에는 양사 사내 직장인 밴드인 한국얀센 '인터리션'과 GSK '신용산 오렌지'가 올라 공연을 펼쳤다.

입장료와 함께 현장에서는 자선냄비를 통한 모금이 진행됐으며 이날 모인 기부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에 전달됐다.

한국얀센에서 GSK로 이직하며 이번 공연을 제안한 신용산오렌지 기타리스트 신종훈 차장은 "한국얀센과 GSK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얀센에 공연을 제안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인터리션의 기유진 주임 역시 "전에는 사내에서만 공연을 펼쳤는데 이렇게 양사가 마음을 모아 더 따뜻한 연말이 될 것 같다. 두달 전부터 모여서 연습한 밴드 멤버들과 공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독 격려차 방문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한독이 유통 마진율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12일 한독 본사를 방문해 김철준 한독 사장을 격려하고 이번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장은 "회원사의 어려움을 협회에서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에 한독을 방문한 것"이라며 "한독과 도매협회가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제약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 효율화와 선진 경영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도매협회와 한독이 유통 마진율 인상을 놓고 견해 차를 보여 발생한 것으로 지난 10일 도매협회 회원 200여 명은 한독 본사 앞에서 화형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겨울용 타이어 어디 있나요?

공급부족이 운전자 애간장

눈이 많이 내리며 겨울용 타이어를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구하기가 힘들어 운전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겨울용 타이어를 찾는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입차 판매 증가와도 연관이 깊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후륜구동차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타이어 규격이 다양해 이런 수요를 업계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겨울용 타이어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일부 규격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편"이라며 "겨울용 타이어는 생산 후 바로 팔지 못하면 1년을 묵혀야 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산 중에는 한국타이어의 아이셉트 에보와 아이셉트 이지, 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와 아이젠이 많이 팔리는 편이고 넥센타이어는 수요가 비교적 적다. 수입 타이어로는 브리지스톤과 미쉐린, 컨티넨탈 등의 제품이 있다.

/정대학기자 [illegible]

이색 채소 한자리에 12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여성 모델들이 국내산 이색 채소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파프리카 1개 1650원, 브로콜리 1송이 1450원, 콜라비 1개 1790원, 래디시(100g) 1750원, 콜리플라워 1통 3980원, 알러트 1통 2980원이다.

/연합뉴스

'차량 무인단속 적발' 국세청 사칭 스미싱 주의

국세청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인 397-1200번을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최근 대량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는 '귀하의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kr or road kr' 인터넷주소가 병기돼 있다.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 창이 뜬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또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을 요구하는 수법의 스미싱 문자 주의보도 내린 상태다.

/김승호기자 unique@

"채권단은 책임 다했나"

Issue&View 법정관리 문턱 선 쌍용건설 (하)

/거세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워크아웃 전후 임원 그대로 지급보증 거절 해외수주 '0'

쌍용건설이 또다시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채권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쌍용건설의 경영은 채권단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이 사실상 맡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데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은 채권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쌍용건설의 자금관리단은 우리은행에서 파견된 자금관리단장을 비롯해 산업·신한·국민은행에서 나온 자금관리부 국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부실 이끈 경영진 그대로 중용

워크아웃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 쌍용건설 임원은 김석준 회장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그런데 21명의 이름은 워크아웃 개시 후인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에 그대로 등장한다.

쌍용건설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워크아웃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던 김영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김 감사는 부산 사하구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지 불과 3일 만에 쌍용건설 상임감사로 내정된 바 있다. 일본 다이와리조트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일본통임을 인정받아 선임됐지만 김 감사가 온 뒤로 쌍용건설이 일본에서 수주한 공사는 1건도 없다.

◆해외 공사 따오라면서 지급 보증은 거절?

채권단이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경영진 교체 문제만이 아니다. 애초 워크아웃에 부정적이었던 채권단이 이에 합의한 데는 쌍용건설의 해외 건축 능력 때문이었다.

실제 쌍용건설이 2010년 6월 완공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보면 이 회사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듣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일본·프랑스·홍콩 등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가 달려들었지만 발주처의 요구를 못 맞춰 포기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는 쌍용건설의 수주 실적은 올해 들어 전무하다. 채권단에서 지급 보증을 거부해서다. 싱가포르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확실시됐던 톰슨라인 지하철 공사나 창이공항 신축 공사 모두 발주처에서 100% 지급 보증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이 30% 이상은 불가하다고 해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최대 실적 SK하이닉스 43명 '승진잔치'

SK 141명 임원 인사단행

SK가 12일 예년과 비슷한 규모인 141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43명이 대거 승진했다.

SK는 우선 '위기 속 안정과 성장 추진'이라는 경영 방침하에 '따로 또 같이 3.0' 체제의 안전판을 위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6개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유임했다.

또 최고경영자(CEO)급 인사에서는 박장석 SKC 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정기봉 SKC 화학사업부문장이 사장으로 선임돼 박장석 부회장과 함께 신소재 개발과 사업화를 이끌게 됐다.

SK케미칼 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에너지 화학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김철 SK케미칼 수지사업본부장이 후임 SK케미칼 사장으로 선임됐다.

SK가스 사장에는 김정근 SK가스 가스사업부문장이, SK증권 사장에는 김신 전 현대증권 사장이 선임됐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 사장은 유임됐고,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기화 SK에너지 마케팅본부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내년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전체 승진자 규모는 신규 선임 100명을 포함한 총 141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에서 43명이 대거 승진했다.

/정대균기자 [illegible]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global

metro HongKong

metro Mexico

Convocan a brincars la entrada del Metro

지하철요금 160% 인상에 무임승차 시위

13일의 금요일, 멕시코시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시위가 일어난다. 다소 과격하게 보이는 이번 시위가 펼쳐지는 이유는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이다. 최근 멕시코시티 교통 당국은 지하철 요금을 3페소(약 245원)에서 5페소(약 405원)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6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상률에 시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 넘어가는 무임승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metro Sweden

Var tionde svensk går på

Var tionde svensk går just nu på en diet. Men smartbryts ... Det visar en ny undersökning.

스웨덴 여성 50% "지금 다이어트하는 중"

스웨덴식품업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스웨덴인 10명 중 1명은 최근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다이어트까지 포함하면 무려 네 명 중 한 명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식은 일명 5:2 다이어트다. 간헐적 단식의 한 방법으로 일주일에 5일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2일은 단식을 하는 것이다.

metro France

...ie à la magie de Noë...

크리스마스 소품 일년내내 팝니다

프랑스 낭트에 위치한 한 크리스마스 소품 매장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소품을 1년 내내 팔고 있는 것.

지난 10월 매장을 오픈한 점주는 50대의 전직 보안 담당자 앙토안 크랑(Antoine Kerrand)이다. 100% 크리스마스를 위한 소품을 파는 이 매장에는 러시아식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크리스마스 음악, 시계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진열돼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사장 앙토안은 "매장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유럽 각지에서 온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을 자난 10년여간 꿈꿔왔다고 소개했다.

◆어렸을 적 추억에서 모티브

그는 첫 시업 계획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시작됐다고 밝히며 "그때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소품을 파는 매장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추억 덕에 유난히 성탄절을 좋아한다고 말한 그는 "부모님이 항상 종이로 엄청난 트리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자정 미사는 늘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다닌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현재 그는 소품 진열과 인테리어를 모두 맡고 있다. 세련된 솜씨를 가진 덕분에 매장에 들르는 고객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는 "어떤 젊은 사람들은 30분 동안 물건을 사지도 않은 채 넋 놓고 구경만 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소품의 경우 밸런타인데이나 사활절 등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그는 "이곳은 항상 크리스마스를 위한 작은 공간으로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필 로랜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농구공 소녀' 수영선수 됐다

하반신 절단후 의족 살 돈 없어 공 끼워 생활… 피나는 노력으로 장애인대회 휩쓸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어 농구공에 구멍을 내 거동하는 첸홍옌(사진). '농구공 소녀' 첸홍옌이 중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수영선수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윈난성 루량(陸良)현 출신인 첸홍옌은 지난 2000년 차 밑에 깔려 골반 아래쪽을 완전히 절단해야 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

집이 가난해 의족을 사줄 수 없던 아버지는 낡은 농구공을 잘라 그의 허리 아래쪽에 고정시켰다. 이동을 할 때는 양손에 특별히 제작한 나무 지지대로 지탱하며 몸을 움직였다. 이렇게 그는 농구공에 의지해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그는 경제적인 문제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던 차에 많은 장애인 수영선수를 양성한 장훙구(張紅)코치의 눈에 들었다. 장 코치는 그에게 수영선수가 되라고 권유했다. 같은 해 8월 윈난 장애인연합회의 지원으로 장 코치는 전국에서 첫 장애인수영부를 결성했고, 첸홍옌은 첫 선수단이 됐다. 전문 장애인 수영훈련을 받으며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

하반신이 없는 그는 물에서 평형감이 없어 좌우로 흔들리기 쉬웠고 이는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 코치는 양어깨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시작했다.

장 코치는 훈련을 하면서 그가 수영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첸홍옌은 부력이 매우 좋다. 물과의 접촉면적이 작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팔 힘도 좋고, 무엇보다도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첸홍옌은 7년 경력의 '베테랑' 수영선수다. 2008년에는 윈난성 장애인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2009년 전국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땄다. 2011년 전국장애인경기대회에서는 여자 평영 100m에서 3위를 차지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다리도 생겼다. 지난 9월 중국재활센터 의족 전문가들은 그의 팔 길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의 키를 164㎝로 계산해 이에 맞춘 의족을 제작했다.

첸홍옌은 "더 열심히 훈련해서 기록을 향상시키겠다"면서 "국제 경기에 참가해 세계적인 수영선수로 발돋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나, 집에서 직접 김장 담그는 여자야~

진장족 위한 도우미 제품

저울은 든든하게 나기 위한 김장 담그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집에서 김장을 하는 '진장족'이 늘어나면서 일손을 덜어주는 김장 도우미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장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은 소(속 재료) 만들기. 최근 1~2인 소규모 가구 맞벌이 가정에서는 만들어진 김장 양념을 많이 찾는다. '양념의 달인'의 김치양념은 배추·무 등 식재료만 준비하면 필요할 때마다 싱싱한 배추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다. 팩으로 포장돼 있어 위생적이다. 배추 반 포기에 양념 1팩(300g)이면 적당하다.

양념의 달인 관계자는 "100% 순수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고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칫소 만들기는 무채 썰기부터 시작된다. 다이소와 소프트 그립 '다기능 채칼'(2000원)은 무채 썰기용 채칼뿐 아니라 마늘 생강을 나질 수 있는 즙 내기용 강판, 양념 강판 등 5가지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필립스 푸드마스터 역시 슬라이스 강판기 계량기 다지기 등 총 6개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재료를 적접 다듬을 필요가 없어 김칫소 만들기같이 복잡한 요리 과정에서 일손을 덜어준다. 본체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로 세척 가능해 뒤처리도 간단하다.

김칫소 재소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흥건하게 물이 생겨 싱거워지기 쉽다. '야채 탈수기'(5000원)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데, 본체에 재소를 넣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지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팩 포장 양념·야채 탈수기부터 '김칫소' 만능 마스터까지

메이크업 받고 클럽으로 '고고씽'

맥, 19일 홍대앞 이벤트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뷰티 브랜드들이 파티 메이크업 노하우를 알려준다.

맥은 19일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클럽 메이크업'을 주제로 특별한 이벤트를 벌인다.

맥 아티스트가 메이크업 시연을 한 뒤 참가자들이 직접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클럽 퀸'으로 변신한 후에는 맥이 무료로 제공하는 홍대 클럽으로 이동해 밤새 즐기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맥의 인기 아이템을 제공한다. 15일까지 맥 블로그와 블링 매거진 페이스북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몽드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플라워 뷰티 클래스를 연다.

◆마몽드는 24일 명동서

이날 마몽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포인트 화장법을 제안하고 플라워클래스 파티에 어울리는 플라워 액세서리 만들기를 진행한다. 16일까지 마몽드 페이스북에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남기고 함께 하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이재원기자

"러키백 행운을 담아라" 패션 브랜드 MCM이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컨셉스토어 '마지트(M AZIT)' 개점을 기념해 러키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MCM은 24일까지 매일 50만~200만원 상당의 MCM 제품을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러키백에 담아 12만원에 선착순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일 눈썰매 타러 오세요

키즈전용·부메랑 눈썰매장 웅진플레이도시 신규 오픈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도심형 종합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14일 스노우파크 내에 '키즈 전용 눈썰매장'과 '부메랑 눈썰매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키즈 눈썰매장은 언덕의 경사도가 높지 않아 저연령의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워터파크와 부메랑고 슬라이드를 눈 위로 옮겨놓은 듯한 부메랑 눈썰매는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이색 놀이시설이다.

또 웅진플레이도시는 신규 시설 오픈을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14일부터 신한카드로 스노우파크 이용권을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어린이 문구세트가 증정되며 21일부터는 스노우파크 종일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온 귀마개를 증정한다. 문구세트 및 귀마개는 선착순 각 1000개를 증정할 예정이다.

산타 할아버지와 슈퍼 액션 영웅들이 만나 펼치는 이색 '브레이드&댄스 공연 산타&히어로즈'가 매일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과 크리스마스이브 및 당일에는 '크리스마스 매직 콘서트'가 펼쳐진다. /황재용기자

공항철도 직통열차 내년에도 8000원

운임할인 1년 더 연장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논스톱으로 연결해 43분 만에 운행하는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운임 할인(1만4500→8000원)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공항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공항철도는 "직통열차 운임 할인 실시 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할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운임 할인을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는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할인 범위가 확대돼 만 65세 이상 경로 이용객도 6900원에 직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KTX 열차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직통열차 추가 할인(직통열차 운임 6900원 적용)도 그대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객에게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빠르게 제공되며 공항철도 서울역 주차장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황재용기자

웨딩 고객에 '허니문 선물'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내년 1월 31일까지 2014년도 예식을 계약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태국 르네상스 푸켓 리조트&스파 3박 숙박권을 제공하는 '웨딩 허니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새해맞이 웨딩 이벤트로 호텔은 2014년도 결혼식을 계약하는 커플 중 두 커플에게 인기 허니문 여행지인 태국의 르네상스 푸켓 리조트&스파에서 조식이 포함된 3박 숙박권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2222-8600 /황재용기자

'골드퀸' 김성령 꽃미모 비결 있었네!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정관장 '화애락퀸'·휴대하기 좋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불티

국내 음료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꼽으라면 1위는 당연히 건강 관련 제품이다. 연말연시 계속되는 술자리와 본격적으로 다가온 추위 등으로 유달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여기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여성들이 부쩍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홍삼을 활용한 이색 제품과 여성 고객을 위해 특화된 제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정관장 홍삼을 제조하는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홍삼에 기능성 원료를 결합해 만든 갱년기 여성용 복합건강기능식품 '화애락퀸'은 출시 8개월 만에 150억원가량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성을 높여 지난해 10월 출시된 홍삼농축액 '홍삼정 에브리타임'도 출시 1년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화애락퀸'은 계약 재배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6년근 홍삼에 갱년기 건강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백수오와 속단, 당귀 등이 함유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건강기능식품이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경제력을 갖춘 40~50대 골드퀸 여성들이 새로운 소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인삼공사에서도 '골드퀸'을 위한 제품을 발 빠르게 출시하면서 탤런트 김성령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초반부터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 결과, 단일 제품으로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경우 기존 홍삼농축액을 스틱형으로 포장해 휴대성을 높였는데 지난 1년 동안 24만 개가 팔렸다. 이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테이크아웃 홍삼'이라는 콘셉트로 개발돼 휴대성을 극대화한 스틱 스타일의 세련된 포장과 농축액 섭취가 편리하도록 수많은 연구를 통해 최적의 점도로 만들어져 출시 초기부터 홍삼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발상의 전환은 외국인들에게도 통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장기 출장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홍삼 제품에 비해 소형 포장으로 부피가 작아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다는 점이 해외 출국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 7월에 출시한 '홍삼쿨'은 찬물에 잘 녹는 홍삼으로 출시 4개월 만에 60만 포를 판매했다. 물에 잘 녹아 다양한 요리와 음료에 섞어 먹는 방법으로 20~30대들의 홍삼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겨울 시즌을 겨냥해 붉은색으로 디자인에 변화를 준 '홍삼톤 레드'를 출시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소형세탁기 신제품 동부대우 2종 출시

동부대우전자는 7㎏ 드럼세탁기와 6㎏ 전자동 세탁기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형 세탁기 주도권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로써 3~10㎏ 용량의 세탁기 20여 개 모델 라인업을 갖췄다. 동부대우전자는 2009년부터 7㎏ 드럼세탁기, 3㎏ 벽걸이 드럼세탁기, 6㎏ 일반 세탁기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형 세탁기 시장을 공략했다.

이번에 나온 7㎏ 드럼세탁기는 대용량 드럼과 비교할 때 60% 넓게 줄어든 크기(폭 595㎜·높이 840㎜·깊이 440㎜)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에 알맞다. 공기 방울 세탁 기술을 써 옷감 손상이 덜하고 아기 옷·속옷 등 기능별 세탁 코스를 갖췄다.

6㎏ 소형 세탁기는 크기(폭 525㎜·높이 853㎜·깊이 535㎜)가 전자동 세탁기의 절반보다 작다. 외부 공기를 이용한 '바람 탈수' 기능을 적용했다. /[illegible]기자

'초유가 독감 예방' 연구로 입증

두달정도 꾸준히 먹으면 백신 접종보다 효과 좋아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독감'. 일반 감기와 달리 악성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에 의해 감염되는 독감으로 인해 매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일상 풍경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간혹 백신 부족 사태도 잦고 백신을 맞지 못할 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들도 있어 독감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초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독감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약대 김춘진 교수팀은 지난 10월 한국미생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미생물학회지(Journal of Microbiolog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초유 섭취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후 증상 발현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쥐를 5~6마리씩 3개 그룹으로 나눠 1그룹 쥐에는 생리식염수, 2그룹 소 초유 분말, 3그룹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를 2주간 투여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에 감염시킨 후 2주가 지난 뒤 생존율과 체중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초유 투여 그룹과 항바이러스제 투여 그룹의 쥐는 100% 생존하고 체중 변화도 거의 없었다. 반면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그룹의 생존율은 33%에 그쳤고 체중도 20% 감소했다.

김춘진 교수는 "지난 2007년 이탈리아의 연구진이 환절기에 초유를 섭취한 사람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유를 섭취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보다 병원을 찾는 횟수가 3배가량 적었고 발병 일수도 7일 정도 줄어든 것을 알아냈다"면서 "초유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증상 완화 효과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혈관질환자나 고령자·소아 등 독감에 가장 취약한 계층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평소에 초유 제품을 두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아모레퍼시픽, 신진 피부과학자 2년간 연구비 지원

아모레퍼시픽은 12일 서울 서초동 피부과학연구재단에서 '제4회 아모레퍼시픽 신진 피부과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 행사를 열어 피부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전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피부 연구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피부과학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올해는 오상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유박린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고주연 한양대병원 교수, 김병수 부산대병원 교수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과학자는 2년간 매년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초 피부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박영호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메디컬뷰티연구소장은 "이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과학자들이 피부 기초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뉴스&뉴스

레종 블루 타임캡슐 한정판

● KT&G는 특별한 한 개비가 포함된 '레종 블루 타임캡슐(RAISON BLUE TIME CAPSULE)'을 이달 말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레종 블루 타임캡슐은 기존 제품 19개비와 캡슐을 터뜨리면 2002년 첫 출시 당시 레종 블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한 개비'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 전면에는 고양이가 마법을 사용해 타임캡슐을 터뜨리는 모습을 총 5가지 상황으로 디자인했으며, 후면에는 출시 초기의 레종 블루 디자인 일부를 적용해 과거로 돌아간 고양이를 위트 있게 표현했다. 가격은 갑당 2500원이다.

콜드스톤 케이크 7종 출시

●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전문점 '콜드스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7종을 출시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기부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소비자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전달된다. 또 구매객에게는 콜드스톤에서 아이스크림 구입 시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동일 제품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쿠폰 3종도 증정한다.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
CINEf
FX

출시 두달 맞은 '포코팡' 고득점 비법 살펴보니

파워 센 동물 뒤로 배치하고 손가락보단 터치펜을 써라

인기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의 출시 두 달을 맞아 고수들로부터 고득점 비법을 알아봤다.

12일 NH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포코팡은 지난 10월 출시된 이래 한 달 만에 500만 내려받기를 돌파하고, 구글플레이 매출 톱 5위에 오르는 등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색깔의 블록을 연결해 터뜨린다는 단순한 설정과 지인들 간의 경쟁이 인기 요인이다.

기자의 계정을 기준으로 현재 랭킹 1위인 NHN엔터테인먼트 황현돈 과장은 279만3769점을 기록 중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100만점을 넘기기 힘든 상황에서 상당한 고득점이다. 황 과장은 "퍼즐을 위를 향해 터뜨리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폭탄을 가운데 위치시켜야 퍼즐을 사방팔방 터뜨릴 수 있어 점수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포코팡은 3마리의 동물 캐릭터를 아이템처럼 사용해 공격력을 높일 수 있다. 황 과장은 "뒤로 갈수록 파워가 센 동물을 배치해야 더 많은 퍼즐을 터뜨릴 수 있다"면서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수단인 체리 또는 폭탄을 많이 생성하는 동물을 초반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고 레벨 50을 달성한 파장음악 서비스 기업 신케스트의 임태진 부장은 "퍼즐을 집약하고 길게 연결하면 점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 "퍼즐을 연속으로 터뜨리면 얻어지는 콤보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득점에 가까워진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일주일에 3번씩 동물 캐릭터를 뽑는다. 그는 "아무리도 아이템은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 같은 퍼즐을 터뜨려도 점수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코팡 커뮤니티에서 700만 점 돌파 사례가 나온 가운데 한 고득점자는 "손가락보다 터치펜으로 하면 효과적"이라면서 "인터넷에서 동영상 정보를 얻는 것도 요령"이라고 귀띔했다. /정윤형기자 unique@

weme와 더 사랑하세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치는 넷마블과 캄보디아에 해외 책방을 마련한 넥슨, 위메이드의 나눔 프로젝트(사진부터 시계 방향)

기쁘다 '게임 산타' 오셨네

엠게임 '희망펀드' 가금전달 넷마블 연탄 4000장 배달 넥슨 캄보디아에 책방 설립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산타로 변신했다. 회사 특성을 감안한 사회공헌인 만큼 방식은 제각각이다.

미혼 양육모 가정이나 영유아를 돕는가 하면 독거노인 가구에 연탄을 선물하기도 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포털 엠게임은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꿈나무 희망펀드' 기금을 모아 비정부기구(NG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엠게임 나눔 시업 꿈나무 희망펀드는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고자 2011년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기부금과 회사의 후원금을 더해 590만원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후원금 전액은 어린이재단의 해외 난민 스리랑카 아동 후원 캠페인 '두 바퀴의 드림로드'에 사용될 계획으로, 2~3시간을 걸어서 등교하는 현지 아동들에게 30여 대의 '자전거'를 지원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나눔 프로젝트 'WEME와 더 사랑하세요'를 시작, 미혼 양육모·저소득 가정의 신생아 후원에 나섰다.

'WEME와 더 사랑하세요'는 현재 서비스 중인 인기 모바일게임 '윈드러너', '에브리타운', '격주왕', '아틀란스토리', 터치파이터, '에어펀터' 6종의 게임에서 실시한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6종의 게임에 접속해 간단한 미션과 퀘스트를 수행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립된 후원금은 위메이드 모바일게임을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의 마음을 담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액 기부된다.

CJ E&M 넷마블 봉사대는 따뜻한 체온을 담은 연탄 4000장을 배달했다. 임직원 60여 명이 지난 6일 서울 홍제동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1가구에 연탄을 기증했다.

이 회사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 넷마블 임직원 봉사단인 쿠키봉사대가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9년째 진행 중이다.

넥슨은 최근 캄보디아에 '넥슨 작은 책방' 해외 3호점을 설립했다.

캄보디아 캄퐁스프 지역에 소재한 도모다학교에 학생과 주민 7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책방 '위시 플래닛'을 세우고 책장, 직결상, 노트북을 비롯해 2000여 권의 현지 도서를 선물했다.

2004년 시작한 넥슨 작은 책방은 현재 국내 87곳, 해외 3곳에 설립됐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비디오 게임기 살아있네

'X박스 원' 품절사태 빚어져 PS4' 최단시간 210만대 판매

한동안 주춤했던 비디오 게임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다.

전통의 맞수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가 엇따라 내놓은 신제품들이 화제를 모으며 품절 사태까지 보이고 있는 덕분이다.

MS는 최신 비디오 게임기 'X박스 원'(사진 왼쪽)의 판매량이 출시 18일 만에 200만 대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MS의 공보 담당자인 데이비드 데니스는 "X박스 원의 판매가 전작인 X박스 360보다 훨씬 빨라 다수 현의 소매점에서 품절 상태"라며 "크리스마스 쇼핑철에 맞춰 소매 매장에 재고를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5년 발표된 X박스 360'보다 200달러나 비싼 가격을 감안할 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다. 동작인식 기기인 키넥트를 통해 게임기를 구동하고 음성 명령을 통해 각종 기능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게이머들의 마음을 움직인 덕분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X박스 원의 미국·유럽 가격은 499.99 달러(약 52만6000원), 499.99유로(약 72만6000원)로 한국 출시 일정과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5일 출시된 PS4(오른쪽)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역대 최고 빠른 시간 내에 210만대 판매를 지난 1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500만 대 판매는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17일부터 국내에서도 49만8000원에 선보일 예정이어서 판매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PS4의 판매호조는 새로 개발된 게임패드 '듀얼쇼크4'와 전용 카메라 'PS4 아이'를 탑재해 보다 섬세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덕분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가격도 X박스 원보다 100달러가량 저렴하다. /이국명기자 kmlee@

11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KBS2 '우리동네 예체능'의 예체능 팀과 연예인 팀이 성탄절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자선경기를 펼치고 있다

- 코트 위 몸싸움 치열 줄부상
- 카메라 36대로 생동감 담아

각본없는 리얼리티 '덩크'

예체능 촬영장 가보니

국민 생활체육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KBS2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이하 '예체능')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실제 '예체능' 방영 후 방송을 통해 소개된 스포츠의 인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다. 이에 성탄절을 앞두고 11일 경기도 고양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자선경기 현장을 찾아 인기 비결을 알아봤다.

한게임당 파스 3개 기본
5m테이프밴드 무려 4개
프로선수 경기보다 2배

예능+스포츠 접목 인기
생활체육 인원 3배 늘어

#사생결단

경기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농담도 나누고 미소를 잃지 않았던 예체능 멤버들이 경기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말없이 연습하는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이날 예체능 팀의 상대는 석주일 감독을 중심으로 엑소의 크리스, 개그맨 양배추, 윤형빈 등이 소속된 연예인 팀이었다. 석 감독은 경기 전 "승패를 떠나 관중에게 재미를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농구선수 출신 배우 박광재는 "남다른 예능 감각을 보여주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양 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양 팀은 경기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을 펼치며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 경기 도중 박진영은 손가락 부상을 당하고 크리스는 무릎에 테이핑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현역 선수로 활동하며 그라운드 임꺽정으로 불렸던 박광재는 후반 감독에게 선수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마치 대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부상속출

농구는 치열한 몸싸움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체능 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민병원 홍성균 물리치료사는 "첫 경기를 보고 '연예인이 저렇게 치열하게 경기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농구는 배드민턴과 볼링, 탁구와 달리 반복적인 점프와 쉴 없이 뛰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부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한 경기에 파스가 3개, 근육 테이프 밴드는 5m짜리 3~4개 정도 사용될 정도다. 1.5~2개를 사용하는 프로선수 경기보다 2배가량 많다.

현재 예체능의 고정 출연진은 말 그대로 부상병동이다. 서지석은 허리 부상을 당했다. 강호동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혜정은 손목 통증, 줄리엔 강은 발목 부상을 겪고 있다.

홍 물리치료사는 "서지석과 최강창민이 가장 걱정된다"며 "경기가 시작되면 자신의 몸보다 승리를 위한 열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반면 부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로 김혁을 꼽았다. 그는 "선수 출신답게 위험한 순간 자기 방어를 잘한다"고 설명했다.

◆ 심판들이 평가한 출연진 실력(5점 만점)

심판＼출연진	이현민	줄리엔 강	김혁	존박	서지석	강호동	박진영	이혜정	최강창민
하정현(주심)	3	4	5	4	4	2	3	2	2
이창준(부심)	5	4	5	3	4	1	3	4	2
신현준(부심)	4	5	5	4	4	2	3	4	3

#스태프 노력 굳어나

선수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연출하기 위해 농구장에는 ENG 카메라 12대, 6mm 카메라 7대 등 총 36대의 카메라가 설치됐다. 농구 경기 특유의 박진감을 안방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카메라까지 등장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카메라는 좌우로 수십 차례 이동했고, 레일 위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담당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다. 또 경기중 작전타임을 요청할 경우 7대의 카메라가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박찬혁 카메라감독은 "좀 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담기 위해 더욱 많이 움직여야 한다"며 "힘들다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 즐겁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점수는요!

주심 하정현씨는 "멤버들은 모두 최고점이지만 실력 차이는 어쩔 수 없다"며 "강호동 선수는 예체능을 통해 처음 농구를 접했기 때문에 볼 컨트롤 능력이 낮다. 이혜정은 선수 출신이지만 근육이 빠져서 몸싸움에서 밀린다. 그러니 위치선정과 골 찬스를 잘 잡는다"고 평가했다.

/탁진윤기자 ysw@metroseoul.co.kr

star bag

듀크 출신… 호텔서 사망

남성 듀오 듀크 출신 가수 **김지훈**이 사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지훈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지훈은 1994년 그룹 투투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고 2000년 듀크를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지만 2008년 전 아내 이모씨와 이혼하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두 차례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녀 합성사진 유포자 징유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고 밝혔다.

'레전드 오브 ~' 오리콘 1위

2PM이 11일 일본에서 출시한 도쿄돔 라이브 공연 DVD '레전드 오브 2PM'으로 오리콘 DVD 종합 일간차트 1위에 올랐다.

DVD에는 4월 도쿄돔에서 개최한 공연 영상과 멤버들의 무대 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타워레코드 DVD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2PM은 이 공연으로 11만 관객을 동원했다.

신혼여행 중 OST 녹음 화제

가수 **호란**이 신혼여행 중 OST 녹음을 해 화제다.

미국에서 신혼여행 중인 호란은 SBS 월화극 '따뜻한 말 한마디'의 한혜진 러브 테마곡인 '아이 러브 유' 가창을 제안받고 직접 녹음 스튜디오를 섭외하며 작업을 마쳤다. 이 곡은 대만의 인기 여가수 왕약림이 부른 적이 있으며, 호란은 영어 원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불렀다.

소시 활동 안해도 일본 인기 톱

정규 3집 '러브&피스' 오리콘 월간차트 1위

소녀시대(사진)가 오랜 활동 공백과 일본 내 혐한 한류 분위기를 뚫고 오리콘 정상에 올랐다.

소녀시대는 11월 발표한 일본 정규 3집 '러브&피스'로 발매 당월 오리콘 앨범 월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정규 2집 '걸스&피스' 이후 1년1개월 만에 발표한 새 정규앨범으로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특히 정규앨범의 판매량과 차트 성적은 고정 팬층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소녀시대는 2011년 6월 1집 '걸스 제너레이션'으로 1위, 2집 '걸스 앤 피스'로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또 한 번 1위를 차지하며 단단한 입지를 확인했다.

'러브&피스'는 하루 동안 3만7466장이 팔려 일본 록밴드 래드윔프스의 새 앨범 판매량(2만9778장)과 비교적 큰 격차를 유지했다. 이로써 주간차트 정상 등극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앨범에는 '섬주 댄스'로 화제를 모은 '러브&걸즈',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갤럭시 슈퍼노바' 등의 싱글 히트곡들은 물론 '마이 오 마이', '가십 걸즈', '클라이어스' 등 신곡까지 총 12곡이 수록됐다.

소녀시대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14일 요코하마 아리나에서 '걸스 제너레이션 월 라이브-러브&피스'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22일에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단독 콘서트 '베르린 판타지'를 개최한다.

소녀시대는 일본에서의 열기를 내년 초 국내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고 내년 초 컴백을 목표로 앨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4집 '아이 갓 어 보이'를 비롯해 2집 '오!'(2010년 1월), 미니 1집 '지'(2009년 1월) 등 1월에 새 앨범들을 자주 출시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싸이 올해도 '유튜브 킹'

'젠틀맨' 톱 트렌딩 뮤직비디오 1위 선정 6억뷰 돌파 '눈앞'

싸이(사진)가 2년 연속 유튜브 왕좌를 이어갔다.

1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유튜브가 선정하는 톱 트렌딩 뮤직비디오 부문 1위에 뽑혔다. 싸이는 이 부문에서 올해 빌보드 차트를 휩쓴 로빈 시크의 '블러드 라인'을 비롯해 리한나, 셀레나 고메즈, 부르노마스 등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제쳐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싸이는 지난해 '강남스타일'로 '톱 트렌딩 비디오'에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유튜브 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USA 투데이 등 외신들도 "한국의 래퍼 싸이가 젠틀맨으로 유튜브에서 한 해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현재 18억4900만여 건의 조회를 기록 중이며 '젠틀맨' 뮤직비디오 역시 6억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싸이는 올해 발표한 뮤직비디오 중 최다 조회수 기록 경신도 예약해둔 상태로 2년 연속 한 가수가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싸이는 앞서 미국 빌보드의 연말 특집에서 6개 부문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그는 해외에서 외성과를 안고 연말 국내 팬들과 만난다. 20~24일(23일 제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달밤에 체조'를 개최한다. 총 5회 공연으로 6만여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미인대회 출신 톱배우 포함 女 연예인 30명 성매매 연루

미인대회 출신 톱 배우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 최소 30여 명이 성매매에 연루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동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 30여 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벤처사업가나 기업 임원 등 재력가들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일부 여성 연예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9월엔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또 여성 연예인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남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성훈기자 yes@

오감체험특별관 4DX를 관람하는 관객들 CGV 제공

"4DX, 창조경제 본보기"

CJ 미래부 장관상 받아

CGV가 개발한 오감 체험 특별관 4DX가 12일 열린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창출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CJ는 차세대 극장이라 불리는 4DX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국내는 물론 중국·멕시코·브라질·태국·인도네시아·일본·대만 등 17개국에 68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CJ는 "8월부터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성과와 공헌도를 평가해 총 12팀이 선정됐다. 수상팀 중 대기업은 CJ만 선정됐다"고 밝혔다.

CJ는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되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4DX의 창조경제 활약상을 선보인다. 설국열차·뽀로로 의 4DX 하이라이트 장면을 비롯해 '드래곤 길들이기 2'와 '다이노 타임'의 4DX 트레일러 등 약 10분 분량의 4DX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 지드래곤의 콘서트 실황을 영화화한 '원 오브 어 카인드 3D'의 4DX 하이라이트 장면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suno@

극장 들어갈땐 솔로 나올 땐 커플

메가박스 '솔로관' 24일 개관

연인들로 북적이는 연말 극장가에 솔로를 위한 특별 상영관이 문을 연다.

복합상영관 메가박스는 24일 코엑스점에 솔로관을 개관한다. 솔로 영화를 관람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화관을 나설 때 커플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페이스북 사연 공모를 통해 남녀 각 83명을 선정해 영화와 스낵, 커플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남녀 166명은 크리스마스이브 오후 7시30분에 입장 가능하며 자리 뽑기를 통해 랜덤으로 자리를 배정 받는다. 각 좌석에는 한 쌍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팝콘 1개와 콜라 2개가 마련된다.

상영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영화 종료 후 두 남녀가 다정히 나오면 출구에서 추가로 영화 예매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가는 메가박스 페이스북에 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19일 발표된다. /유순호기자

'집으로…' 개봉 첫날 1위

전도연(사진) 고수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전날 하루 동안 9만152명의 관객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사전 시사회를 포함한 관객 수는 10만5413명이다.

방은진 감독의 차기작으로 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마약 운반범으로 오인돼 대서양 건너 외딴섬 마르티니크 감옥에 수감된 평범한 한국인 주부의 실화를 그렸다. '칸의 여왕' 전도연의 2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기도 하다.

외화 '어바웃 타임'은 8만43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위에서 2위로 밀렸다. /박지원기자

12월 2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순위	가수	곡	변동
1	효린	너 밖에 몰라	▲1
2		그리워하다	▼1
3	EXO	12월의 기적	
4	miss A	Hush	▼1
5	다비치	편지	▼1
6	윤하	괜찮다	NEW
7		나 어떡해	NEW
8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
9	FT ISLAND	미치도록	▲1
10		내일은 없어	▼5

애니 대작 골라보는 재미

기대작 4편 19일 동시개봉
체코 등 국적도 다양해져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겨냥한 대작 애니메이션이 쏟아진다. 앞세운 기술력을 앞세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체코·스페인 등 다양한 국적의 애니메이션이 개봉해 치열한 흥행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애니메이션 홍수 속에 개봉 예정작들은 저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더빙에 투입해 극장가를 공략할 예정이다. 다만 국산 애니메이션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19일에는 애니메이션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편의 기대작들이 한꺼번에 개봉하기 때문이다.

영국·미국·호주 합작 3D 애니메이션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는 7000만 년 전 알래스카의 작은 공룡 꼬마가 대자연 속에서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자연을 3D로 촬영한 영상에 컴퓨터그래픽(CG)으로 창조해낸 공룡 캐릭터들을 덧입히는 기술력으로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과 공룡의 모습을 재현했다.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을 통해 어린이들의 우상이 된 이광수가 더빙을 맡았다.

애니메이션의 명가로 불리는 월트디즈니의 신작 '비행기'는 세계 최고의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고소공포증 농약살포기 더스티의 용감한 도전을 그린 3D 모험물이다.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의 흥행 기록을 세웠던 '카' 시리즈를 비행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새롭게 만들었다. 땅 위에서 펼쳐졌던 레이싱 경기가 무대를 넓은 하늘로 옮겨 3D로 펼쳐진다.

월트디즈니 신작 '비행기'(사진 위)와 영·미·호주 합작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

미국 애니메이션 '세이빙 산타'는 차세대 발명기를 꿈꾸는 엉뚱한 선물요정 버나드가 악당에게 납치된 산타를 구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엑소의 멤버 수호와 개그맨 신동엽, 에이핑크 정은지가 더빙을 맡았다.

체코·미국이 공동 제작한 '다락방의 토이스토리'는 "유럽의 팀 버튼"이라고 불리는 체코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거장 이지 바르타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한 번에 한 프레임씩 세심하게 제작하는 방식으로 50명 이상의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가 3년 이상 공들여 작업한 수공예 애니메이션이다.

국내에서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벼가'에 애니메이션 '셰미의 어드벤처'의 벤 스타센 감독의 신작 '썬더와 마법저택'은 24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개봉한다. 100% 손으로 그려낸 드로잉을 바탕으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이다. 귀여운 꼬마 고양이 썬더가 악당의 음모에 맞서 마법저택을 사수하기 위해 벌이는 미션을 담았다. 개그 듀오 컬투가 2인 6역의 더빙을 맡았다.

31일 개봉할 스페인 애니메이션 '저스틴'은 아무도 꿈꾸지 않는 시키는 대로 제국에서 진짜 기사를 꿈꾸는 소년 저스틴의 위대한 도전을 그렸다. MBC '일밤-진짜 사나이'로 인기가 치솟은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부터 tvN '꽃보다 할배'의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까지 화려한 더빙 캐스팅을 자랑한다.

/박지원기자 pjw1027@metroseoul.co.kr

'응사' 배경음악 주역들 귀환

1994년 발라드와 록 댄스로 가요계를 이끌었던 3인 중 하나인 서태지(큰 사진)가 컴백 소식을 알렸다. 신승훈, 김종서(작은 사진 왼쪽부터)가 뒤따라 돌아왔다

서태지 자택서 9집 작업 한창… 컴백과 동시에 전국투어
신승훈 '쏘리'로 음원 1위… 김종서 2년만에 싱글 발표

인기 드라마 tvN '응답하라 1994'의 배경음악 주역들이 가요계로 돌아왔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을 시작으로 '록의 황제' 김종서와 '문화 대통령' 서태지가 컴백 소식을 알리고 있다.

1994년 4집을 발표하고 그 후로 흐렸동안' '오랜 이별 뒤에' '슬픈 사랑'으로 잔잔한 감동을 남겼던 신승훈은 10월 새 앨범 '그레이트 웨이브'를 선보였다. 타이틀곡 '쏘리'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지난 6년간 음악적 실험과 여정을 담아낸 완결작으로 재즈 힙합과 디스코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 9곡을 담았다. 이 음반은 초도 물량 2만 장이 매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남겨진 독백' '겨울비' 등을 히트시킨 록의 황제 김종서도 2년 만에 디지털 싱글 '에프다'를 발표했다. 이번 곡은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남자의 마음을 애틋하게 그렸다.

'에프다'는 기존의 록발라드와 트렌디한 음악 스타일이 잘 조화된 감성 발라드다. 2년간의 공백기 동안 성악을 공부해 보컬을 한 단계 향상시켰고 그만의 세련된 표현력이 더해져 한층 풍부한 음악을 완성시켰다.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 3집을 발표하고 '발해를 꿈꾸며' '교실 이데아'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서태지도 컴백 소식을 알렸다. 현재 서태지는 평창동 자택에서 9집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서태지씨가 현재 외유 없이 자택 스튜디오에서 새 앨범을 열심히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서태지는 컴백과 함께 대규모 전국투어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호기자 ybh@metroseoul.co.kr

컴패션밴드 희망 노래했다

한남동서 쇼케이스 개최

가난으로 꿈을 잃은 어린이에게 희망의 노래를 전하기 위해 연예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컴패션밴드가 2009년 1집에 이어 4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12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블루컨벤션홀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컴패션밴드는 지인표·신애라 부부와 주영훈·김태원·윤시윤·황보·리키김·한그루 등 가수·배우·방송인을 비롯해 무용가·미술가·회사원 등 8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된 팀이다.

2집 '그의 열매'에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제아가 만든 수록곡 '마마 송', 심태윤이 시가와 공동 작곡한 '연을 날리자', 차인표의 아들 차정민이 작사·작곡한 '친구가 됐으니까' 등 11곡이 수록됐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자신의 후원 어린이 안드레이를 떠올리며 '마마 송'을 만든 제아는 이날 라이브로 곡을 소개하며 눈물을 흘려 감동을 선사했다. 필리핀 세부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이 알조의 이야기를 노래로 옮긴 심태윤은 "김범수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수라 가창을 부탁했다"고 제작 뒷얘기를 전했다.

컴패션은 1952년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됐으며, 한국컴패션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유순호기자 ...

컴패션밴드가 12일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2집 '그의 열매'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오로라 공주' 임성한 작가 "객관성 유지하려 노력"

7개월간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MBC 일일극 '오로라 공주'의 임성한 작가가 종영을 앞두고 직접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12일 MBC에 따르면 임 작가는 전날 '오로라 공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그동안 여러 비난 속에서 집필해온 심경을 전했다. 그는 "쓰는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연출부와 심의실 의견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 회까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실수가 있으면 또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순호기자

올해 연기대상은 '여인 천하'?

하지원 · 김혜수 · 이보영

MBC 하지원 후보 1순위
KBS 김혜수 황정음 주원
SBS 이보영 포함 3파전

연말마다 열리는 방송 3사 연기대상 시상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가 대상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인 올해의 연기대상은 '여인 천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뚜렷한 흥행작이 드물어 대상 결과를 쉽게 예측하긴 힘들다.

MBC는 하지원·박원숙·한지혜로 대상 후보가 압축되고 있다.

하지원은 방영 전부터 역사왜곡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기황후'를 시청률 20%가 넘는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하게 한 일등공신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후보다. 훗날 기황후가 되는 남아 역할을 맡은 그는 뛰어난 캐릭터 몰입도로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이끌었다.

박원숙은 '백년의 유산'에서 악독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시어머니 방영자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30% 이상을 기록한 시청률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고, 한지혜는 '금 나와라 뚝딱'에서 착하고 억척스러운 몽희와 도도한 재벌집 며느리 유나,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KBS에서는 김혜수·황정음·주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혜수는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직장의 신'에서 만능 계약직 미스김을 맞춤 옷을 입은 듯 소화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고달픈 직장인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한편 미스김 특유의 말투와 대사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황정음은 '비밀'에서 완벽한 변신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뒤 강유정을 열연해 호평을 받았으며, 주원은 '굿 닥터'에서 자폐 성향이 있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천재 의사 박시온으로 안방극장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SBS는 이보영·송혜교·공효진의 삼파전이다.

이보영은 로맨스와 흥행을 동시에 잡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속물이었지만 초능력 소년 박수하를 만나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로 변모하는 장혜성을 흥미롭게 연기했다. 특히 열 살 연하인 이종석과의 달달한 로맨스로 여성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송혜교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시각 장애를 지닌 채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대기업 상속녀 오영 역으로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공효진 역시 '주군의 태양'에서 귀신을 보는 태공실 역을 맡아 자신의 장기인 로맨틱코미디 연기를 제대로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진영기자 ...

디스크치료 진화 이젠 수술 없이 끝낸다

초·중기 디스크 질환은 도수운동 치료…말기는 10분 정도 고주파로 끝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왔다. 허리 통증으로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 B씨는 회사 근처 한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치료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최근 유명 척추병원을 찾아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비싼 비용에 비해 효과가 일시적이라 B씨는 결국 지인의 추천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은 적이 있는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조성태 병원장은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B씨의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다고 판단했으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B씨는 제4~5 및 제5요추, 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요추 신경치료 주사를 맞은 후,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요추 도수 감압 운동 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고 지금은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시행!

최근 시대가 변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작업 등으로 B씨와 같이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척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존득 요법, 침 치료 등으로 치료하다 보니 결국 질환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자주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척추관절 전문 치료병원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 통증 부위에 신경 주사치료를 실시한 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시행한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척추뼈를 바로 잡는 치료로 현재 병원에는 12명의 도수치료사가 있다. 또 감압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키는 치료이며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해진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가수 휘성 및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아 최근에 화제가 된 강남조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다른 치료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방법이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 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875-2200

/황재용기자

감기 걸렸다고 코 세게 풀면 안돼!

어린이를 방치하면 만성중이염 발전…약물이나 간단한 수술로 완치 가능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겨울 날씨에는 '중이염'을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 감기가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이염은 아이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귀질환으로 방치하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않고 방치하면 만성중이염 될 수도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이관이 짧고 넓으며 수평에 가깝다.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세게 풀게 될 경우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을 타고 세균이 중이 내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소아 중이염은 세 살 이전의 아이 4명 중 3명이 경험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감기를 앓은 후라면 아이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귀를 자주 잡아당기거나 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 듣는 데 문제가 있거나 잠을 잘 못 자고 많이 보채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좋다.

또 만성중이염으로 발전하면 청력이 저하되고 이명과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

삼공민 아이케어네트워크 이비인후과 원장은 "만성중이염은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오래될수록 세균 감염의 위험과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이염 약물치료 및 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어

중이염은 약물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최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 실태가 공개되면서 항생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이염은 항생제를 처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진료 지침에 따라 항생제를 적정량 사용해 중이염을 치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 사용 진료 지침이 개발돼 있으니 과량 복용만 주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만성중이염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이외의 약물치료로는 고막 이상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고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중이염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정확한 검사와 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삼공민 원장은 "항생제는 매우 필요한 치료제임이 분명하나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며 수술 역시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의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hoyul08@metroseoul.co.kr

건선 바르게 알기 건강강좌 18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서

중앙대학교병원은 오는 18일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건선 바르게 알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서성준 피부과 교수의 단독 강연으로 진행되며 건선 관리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도 소개된다. 강좌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박' 아내 결정만 남았다

"추신수, 7년 1억4000만 달러 계약 아내와 상의중"…텍사스·컵스 유력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추신수(31)가 조만간 1471억원에 가까운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 스포츠는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의 말을 인용해 추신수에게 결단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폭스 스포츠의 칼럼니스트 존 폴 모로시도 이날 트위터에서 보라스의 말을 빌려 "계약 제안을 받은 추신수가 현재 아내와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추신수를 대신해 FA 협상에 나선 보라스가 구단별 제안을 추신수에게 전달했고, 칼자루를 쥔 추신수가 마지막 고민 중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USA 투데이와 ESPN 등 미국 언론은 추신수와 보라스가 원하는 계약 조건을 7년 1억4000만 달러(약 1471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신수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 이런 메가톤급 계약 조건을 내건 팀도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야후 스포츠는 추신수가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부에나비스타에서 열리는 윈터미팅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자택이 있는 애리조나주와 보라스의 사무실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여러 팀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추신수에게 관심을 쏟던 뉴욕 양키스를 필두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시애틀 매리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영입 경쟁에서 발을 빼는 등 시장 상황이 유리한 것은 아니나 보라스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추신수의 거액 계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보라스는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협상에서 내셔널리그 1~2위를 다투는 추신수의 득점·출루 능력, 리그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12위에 오른 추신수의 득표율 등을 집중 강조했다.

보라스는 야후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추신수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수"라며 "구단의 자금력은 추신수 영입에 물리적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계약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결국 시애틀마저 손을 뗀 현재 추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카고 컵스, 볼티모어 오리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호기자 sgw@metroseoul.co.kr

"솔직히 현실은 조 3~4위"

홍명보 "조추첨은 희망적"

홍명보(44) 축구대표팀 감독이 16강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4 브라질월드컵 조 추첨식 및 경기장·베이스캠프 현지 답사를 마치고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홍 감독은 "조 추첨 결과만 보면 죽음의 조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상대할 세 팀이 모두 까다로운 상대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확실히 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한국은 7일 브라질에서 열린 조 추첨 결과 H조에서 벨기에·러시아·알제리와 함께 16강 진출을 다투게 돼 다행히 죽음의 조를 피했다.

홍 감독은 "조 추첨이 끝나고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조 추첨을 통해 희망을 보신 것 같다"며 "희망을 현실로 바꿔야 하는 만큼 하루하루 똑똑히 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6강 진출 전략에 대해선 "솔직히 우리는 H조에서 3~4위의 위치라고 봐야 한다"며 "결국 2위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팀을 이기겠다는 전략보다 우리의 준비 과정에 모든 게 달렸다"고 말을 이었다.

/장병호기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식과 현지 경기장 및 베이스캠프 답사를 마치고 12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고 기대주 손흥민"…박주영 발탁은 52%가 찬성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2명을 대상으로 조 추첨 결과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9%가 유리하다는 대답을 했다.

또 응답자의 51%가 16강 이상 진출을 예상했다. 월드컵에서 가장 큰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38%가 손흥민을 택했다. 박주영의 대표팀 복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뜨거운 세리머니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 다 실바(오른쪽)가 12일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스코틀랜드 셀틱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팀 동료 마르틴 몬토야(왼쪽)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셀틱을 6-1로 대파한 바르셀로나는 H조 선두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AP 연합뉴스

메시 없으면 네이마르…챔스리그 해트트릭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 다 실바(21 FC 바르셀로나)가 2014 브라질월드컵 최고의 스타 등극을 예고했다. 네이마르는 2013~201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날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네이마르는 1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셀틱과의 대회 조별리그 H조 최종 6차전에서 전반 44분과 후반 3분, 후반 14분에 릴레이 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네이마르가 무려 3골을 몰아넣으며 재결시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다.

조별리그 4차전에서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한 바르셀로나는 이날 승리로 승점 13점을 기록하며 H조 선두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조의 이탈리아 AC 밀란(2승3무1패·승점 9)은 2위 경쟁을 벌인 네덜란드 아약스(2승2무2패·승점 8)와 득점 없이 비겨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태민기자

니퍼트 4년연속 '두산맨'

미국 출신 투수 더스틴 니퍼트가 4년 연속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로 활약한다.

2011년 두산과 계약하고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뛴 니퍼트는 12일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니퍼트는 77경기에 출장해 499이닝을 소화하며 38승 20패, 평균자책점 3.05, 탈삼진 380개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부상에도 12승을 거두며 두산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친화력을 높이 평가받는 니퍼트는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한편 유희관(27)은 이날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 연봉인상률을 기록하며 1억원에 2014년 계약을 맺었다. 올해 연봉 2600만원을 받았고 연봉 인상률은 285%다.

/유순호기자 sunei@

프로농구 전적 12일

인삼공사	12	15	16	19	64
KCC	16	19	23	11	71
SK	13	16	16	28	75
모비스	15	16	14	15	60
신한은행	24	15	20	15	74
우리은행	17	22	12	20	71

프로배구 전적 12일

기업은행	3	0	흥국생명
현대캐피탈	3	1	대한항공

'동척' 관사가 남아있다

권기봉의 도시산책

최근 서울 경복궁의 서쪽 동네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카페나 음식점들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상업적인 분위기로 바뀐 북촌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탓이리라.

그런데 동네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한옥 외에 일본식 건물들도 몇몇 발견할 수 있다. 통의동 대림미술관 근처에 있는 집들이 그것인데, 기와를 얹은 모습이 언뜻 한옥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식 건물임에 틀림없다.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이 살던 관사(사진)다.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부르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식민지 착취기관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정치적인 방식으로, 조선은행이 경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일본군이 군사적인 방식으로 조선을 수탈하고 조선인을 억압했다면 동척은 토지를 수단으로 조선인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랬던 동척의 본거지였던 서울 을지로2가에는 지금 외환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을 뿐 당시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동척 건물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열사의 동상만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살던 통의동의 동척 관사만은 서촌 재개발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하다.

전통 한옥이 많이 남아있어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경복궁 서쪽 동네. 동시에 그곳은 쓰라린 식민지 시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이름을 두고 서촌, 세종마을 등 논란이 분분한데, 지명 분류 기준을 청계천으로 잡던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상촌(上村)'이나 '웃대', '웃마을' 등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서촌은 청계천의 서쪽에 자리 잡은 지금의 중구 정동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12/13 金 일출 07:38 일몰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미세먼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해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부정맥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둥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4	
9			8		4			8
	5	3	8		9	2	8	
			9		2			
7		6				9		8
			7		6			
	4	7	3		8	5	8	
3			2		7			4
	2						9	

2								5
5				8	9			4
	4						7	
6					2	9	5	
			1		3			
	2	1	9					8
	7						9	
1			5	3				7
8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머리가 좋아지는 리더스 퍼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역학 공부 권하신 이유가 뭐죠 전문성 있으니 학문에 뜻 둬야

lovetree55 여자 59년 1월 6일 묘시

Q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자격증을 따서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보육교사나 간호조무사 공부를 권유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역학을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A 삼순해는 김종배 이수광과의 삼각관계에서 재물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가식서가숙이라는 말처럼 어떤 말에 동쪽으로 가도 좋은 것 같고 서쪽으로 가도 좋은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라면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천문성(天門星)이 있어 친구들이 보육교사나 간호조무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역학 공부를 권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사주는 부부의 이별수 나지 부익이 약하다 했는데 사람이 알 도리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내 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운명학이나 관상 등이 생긴 것입니다.

병원서 병의 원인도 모른대요 쇠약한 운기 있지만 참아내야

은빛물이 여자 74년 2월 13일 오후 2시40분

Q 카드회사 콜센터에 입사해 교육받던 중 판정을 받기 왔습니다. 만성피로증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과 관련 없는 이상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사주를 풀어보니 질병이 몸속에 발생하는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 참을 수 없는 통증 감소, 자녀 의한 물리적인 폐쇄가 원인일 수 있고 동위원소의 치료 부작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주로는 생일날이 절(絶)에 있어 극도로 쇠약한 운기를 띠며 박복한 사주입니다. 그러니 박복한 고조의 손상이 따른다 해도 인고를 감당하면서 움직이면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위대한 이들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는 고비를 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논할 때 한 가지 절대적인 요소는 인내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게재하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13일(음 11월 11일) 김덕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외출 때 안전사고 주의. 60년생 부부가 화음을 꽉 유지하면 못 넘을 벽은 없다. 72년생 빛나는 성과로 시선 집중. 84년생 진정성 보이면 당신의 세상 온다.

소 49년생 술자리가 길어지면 후회만 남는다. 61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73년생 직장인은 중책 맡아 어깨가 무겁다. 85년생 동료 험담은 누워서 침 뱉기.

호랑이 50년생 분주하니 수익 있구나. 62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짐은 허락된다. 74년생 서둘러서 욕에 더 만들지 않도록 할 것. 86년생 불친절 식사와 관계 개선된다.

토끼 51년생 자꾸 떨어지지만 기분 좋다. 63년생 마음먹은 일은 당장 끝내라. 75년생 될도 안 되는 일 하면 신뢰만 잃는다. 87년생 좋은 기회 오니 절대 놓치지 마라.

용 52년생 자녀 문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64년생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독이다. 76년생 좋은 문서 들어오니 꼭 잡아라. 88년생 실수하다 보면 길을 알게 된다.

뱀 53년생 막힌 돈줄은 결국 풀린다. 65년생 대박 없는 일은 빨리 접어라. 77년생 오류와의 싸움에 매진해야 실익 생긴다. 89년생 변수 많으니 끝까지 긴장할 것.

말 42년생 지산 착오로 인한 손실 조심. 54년생 공돈이 생겨 기분 좋게 쏜다. 66년생 친구 너무 믿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마라. 78년생 외나무다리 건너는 격이다.

양 43년생 재운이 좋아 지갑이 두둑한 하루. 55년생 선심 쓸 땐 확실하게 써라. 67년생 독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롭다. 79년생 떠나갔던 벗이 돌아와 기쁘다.

원숭이 44년생 컨디션 안 좋으면 쉬는 게 상책이다. 56년생 오랫동안 공들인 일은 성취한다. 68년생 부담스러운 부탁은 거절하라. 80년생 찾던 길이 가까이에 있구나.

닭 45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고민 해결된다. 57년생 마음 비우면 인사형통. 69년생 구상하던 일은 실행에 옮기면 좋다. 81년생 현실성 없는 계획은 당장 접어라.

개 46년생 찜찜한 일은 하지 마라. 58년생 서두르면 엉뚱한 손해 본다. 70년생 재운이 열려 돈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82년생 마음이 공허하면 나쁜 생각만 든다.

돼지 47년생 감기라고 방심하면 큰코다친다. 59년생 달콤한 말에 절대 속지 마라. 71년생 작은 것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83년생 기쁜 소식이 문전에 당도한다.